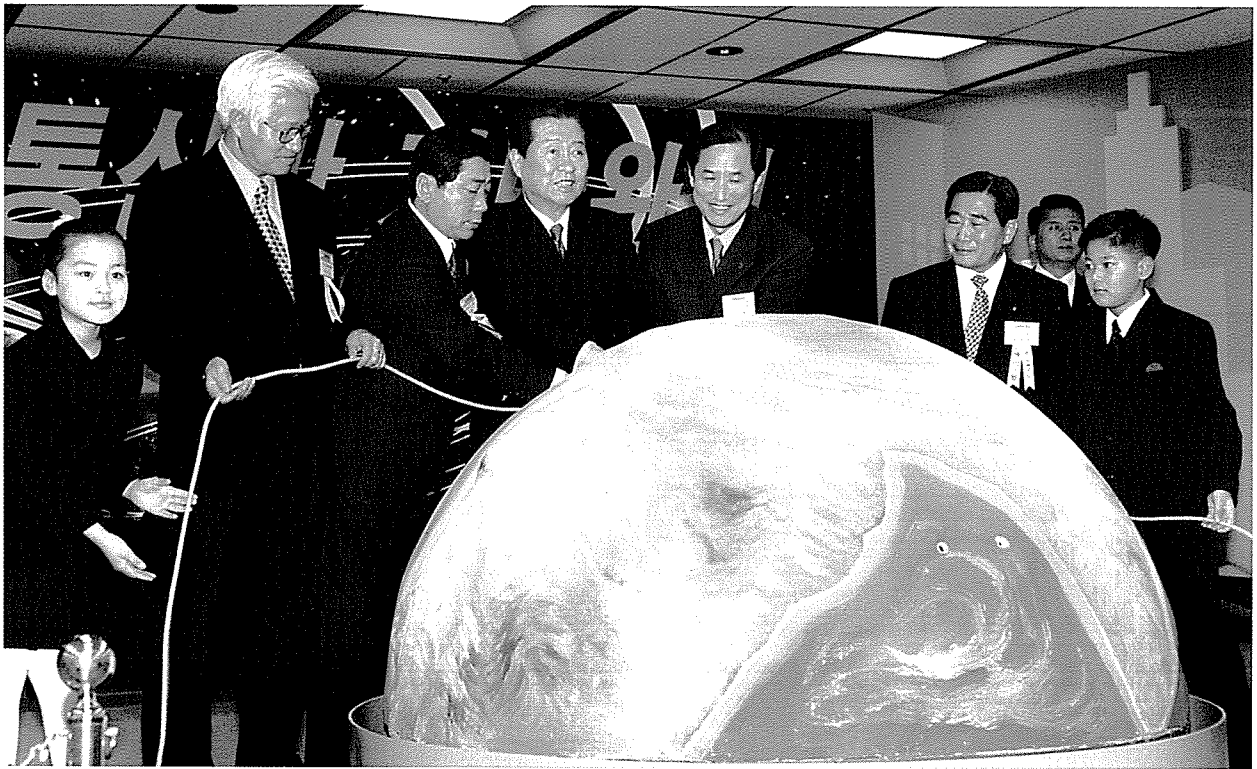


초고속망 2단계사업 조기 완성



▲김대중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기념행사

전국 144개 모든 통화권지역을 고속 대용량 (155Mbps~5Gbps)의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이 마침내 구축됐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월9일 오후 정통부 대회의실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비롯, 안병엽(安炳燁)장관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초고속정보통신망 기반 완성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번에 완성된 초고속정보통신망은 지난 93년부터 추진해 온 초고속망 구축사업 중 2단계 사업으로 당초 2002년에서 2년 앞당겨 마무리됐다.

이로써 전국 모든 지역을 연결하는 고속·대용량의 광케이블망과 초고속(ATM) 교환기가 전국

에 설치돼 전국 시·군·읍·면까지 고속·고품질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에 구축된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최소 전송속도는 155Mbps급으로 이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1질(33권) 분량의 정보를 단 20초만에 보낼 수 있는 속도. 이에 따라 정부기관의 경우, 전자결재 등을 이용해 효율적인 행정을 이루고 인·허가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기업들도 초고속망을 이용한 B2B(기업간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 기업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인터넷쇼핑몰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공급

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이익을 보는 유통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초고속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교육, 가상대학, 멀티미디어 교육 등이 가능해 지역간 차별 없는 교육을 이루고 홈뱅킹, 홈쇼핑, 홈트레이딩 등 각종 생활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얻고 활용할 수 있어 국민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은 고속도로가 국내 산업화를 이끌 듯 국가정보화를 촉진시킬 정보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93년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지난 1단계(95~97년) 사업기간에 전국 80개 지역에 45Mbps급의 광전송망을 구축하고 ATM(초고속교환방식) 시범교환망을 완료한 바 있다.

정부는 당초 2010년까지로 돼있는 3단계 마무리사업을 2005년으로 앞당겨 이미 구축된 광전송망과 초고속 교환망을 고도화하고 3만2000개 수용기관에 622Mbps급의 초고속서비스를 제공, 대단원의 초고속망 구축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초고속통신망 이용 현황

지난해 12월말 현재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2만9,067개 공공기관에서 초고속국가망 3만6,667회선을 이용,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인터넷으로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400만을 넘어서 98년말 5만2000 가구보다 무려 77배나 늘어났다. 이는 인구 대비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에 있어서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또 정부와 한국통신은 지난해 9월부터 전국 10000여 초·중·고등학교에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 최초로 모든 학교를 고속인터넷

(쌍방향 200Kbps 이상)으로 연결, 디지털 교육기반을 마련했다.

◇ 파급 효과와 향후 과제

초고속정보통신망은 정부·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21세기 가장 중요한 인프라로 앞으로 초고속망과 정보기술을 이용한 정부와 기업 정보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특히 정부는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부업무 혁신과 온라인 민원처리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방침이다.

세계 최고의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을 바탕으로 국내 온라인콘텐츠, 소프트웨어, e비즈니스 등 인터넷 신산업분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어 21세기 중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초고속망 구축을 통해 축적된 세계적 기술력은 해외로 수출되고 있으며 특히 아파트용으로 개발된 XDSL계열의 장비들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많은 수출이 기대된다.

반면 중요한 거래 등이 초고속망으로 이뤄지는 만큼 정보보호분야 기반 구축과 국민들간 새로운 정보윤리를 확립·확산하는 일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향후 확충계획

오는 2005년까지 3단계사업을 마무리지어 지식정보강국으로 도약하는 확고한 기틀을 다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화를 촉진시켜 국가행정체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식정보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산업구조를 전환시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밑거름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APOC 2001

12-16 November 2001 · Beijing, China

Asia-Pacific Optical and Wireless Communication Conference and Exhibit

기간 2001. 11. 12~16(전시회 기간 2001. 11 13~15)

장소 북경국제컨벤션센터(Beijing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BICC)중국 북경

주최

SPIE-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Optical Engineering

COEMA-China Optics and Optoelectronics Manufacturers Association

MII-Ministry of Information Industries(China)/Oth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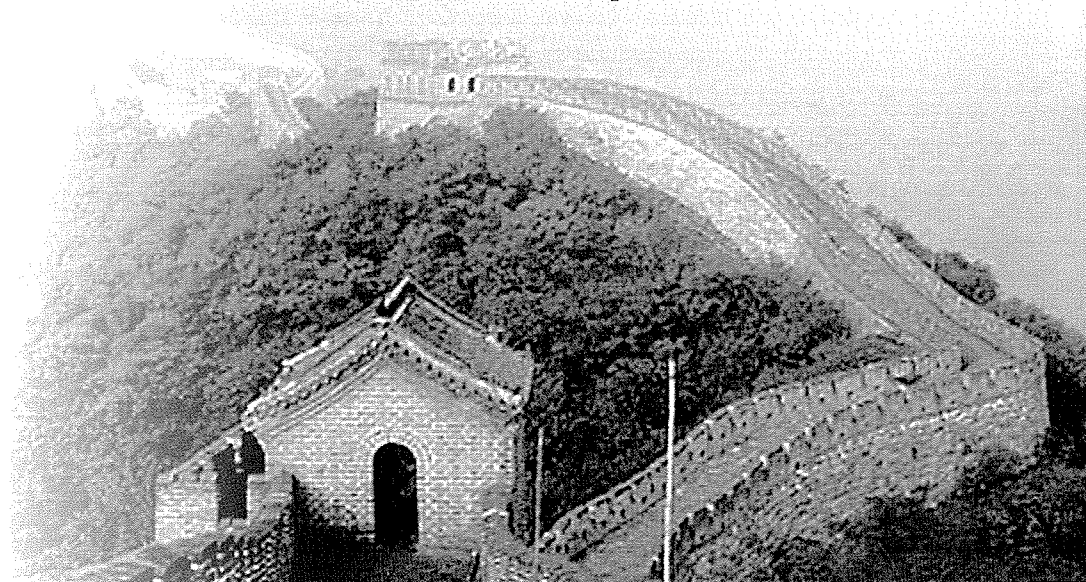
후원

KAPID-Korea Association for Photonics Industry Development/Others

※한국광산업진흥회(KAPID)는 동행사의 공식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본회 회원사는 회원자격으로 동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 www.spie.org/exhibits/apoc

Network Design and Management
Optical Networking
Wireless and Mobile Communications
Telecom Business Development in China and Asia



최상삼 박사 한국광기술원장으로 선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광산업이 본궤도 진입을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

광주시는 지난 3월 5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제 1회 '한국 광기술원' 이사회를 열고 초대원장에 최상삼 박사를 선임한데 이어 직제 규정을 제정하고 올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했다.

향후 3년간 기술원을 이끌어 나갈 원장은 공개 모집에 9명이 입후보했으나 2000년 2월까지 한국 광학회 회장직을 역임한 최 원장이 전문성과 조직 관리능력, 대외적 능력 등 종합적 분석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 원장의 선임에 이어 한국 광기술원 직제규정 등 13개 규정을 제정하고 500억원 규모의 2001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했다.


한국 광기술원은 첨단과학산업단지 남부대학내에 임시사무실을 확보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 광기술원은 광관련 기업에게 상품개발에서부터 시험생산까지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 인프라를 제공하고 광주지역 광산업 집적화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위해 올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내에 40억4천700만원을 들여 1만평규모의 한국광기술원 부지를 매입한데 이어 오는 4월 건립계획을 위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

한국광기술원은 오는 2003년까지 국비 1천120억원, 시비 321억원, 민자 314억원 등 모두 1천755억원이 투입돼 광기술원 건립공사, 광제품 기술지원, 시험생산장비지원, 계측·인증업무 등 광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광주시는 국책기관인 한국광기술원 건립에 따른 인건비 9억2천만원과 운영비 5억7천700만원 등 모두 14억9천700만원을 추경에 확보키로 했으나 열악한 시의 재정을 감안, 인건비 등 운영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취약한 국내 광산업 성장기반 구축과 함께 핵심기술을 개발해 우리나라 광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한국광기술원 초대 원장으로 선임된 최상삼 박사는 ‘국내 광기술의 세계화’를 강조했다.

최원장은 “광산업은 미국과 일본 등 각 나라가 총력을 펼치고 있는 분야로 21세기 최고의 부가가치 산업이 된다”며 “다소 늦게 출발하지만 세계최고의 기술과 노하우를 총집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

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에 포진해 있는 한국인 과학자들의 휴먼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것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지난 74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 광기술 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을 역임해오고 있고 한국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연구기획단장(1997년), 프랑스 국립연구소 연구원(1974~1975년), 한국광학회장(1999~2000년)을 거친 석학이다.

최 박사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재직 시절인 지난 1997년 과기원 한택상교수, 인천대 강준희 교수와 공동으로 21세기형 반도체로 불리는 ‘초고속 고온초전도 전자소자’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초미의 관심을 모았었다. <관련기사 본보 11월호 참조>